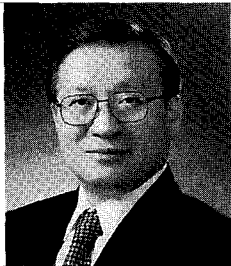


북방 농업 투자 가능성은?



이 재 훈

변호사(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동북아개발위원회 위원장

1. 농업의 세계화와 이에 대한 대비

우루과이라운드 이래 농업개방은 줄곧 세계의 관심이었고, 우리 농민들의 생명줄을 당기는 목줄임이었다. 그렇지만 우루과이라운드는 진통 끝에 다자간 협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WTO체제가 발전되었다.

바야흐로 농업의 모든 것도 결국 세계속에 개방되게 되었고, 자국농업은 세계의 농업과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일등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농업이 세계의 농업과 견주어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에서 일등을 할 수 있는가? 이 답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농민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 답을 공개적으로 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 얼마전 일간지에 「사랑으로 자라는 농업」이라는 기고를 보았다. 본인도 얼마전까지는 그 글과 같은 생각을 하였고, 농민들의 생각은 거기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현실과 농업정책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연구기관의 장을 맡고 계신 분의 생각이 아직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의 생각을 한번은 공개적으로 발제하고 싶었다. 생산 코스트가 10배가 넘는 농사로서 생산원가가 10분의 1밖에 안되는 농업과의 가격경쟁을 애국심이나 국민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러한 대책은 비현실적이다. 도농(都農) 양쪽을 모두 피곤하게만 만드는 의견일 뿐이다.

본인은 농업에 있어서는 원래 전문가가 아니다. 법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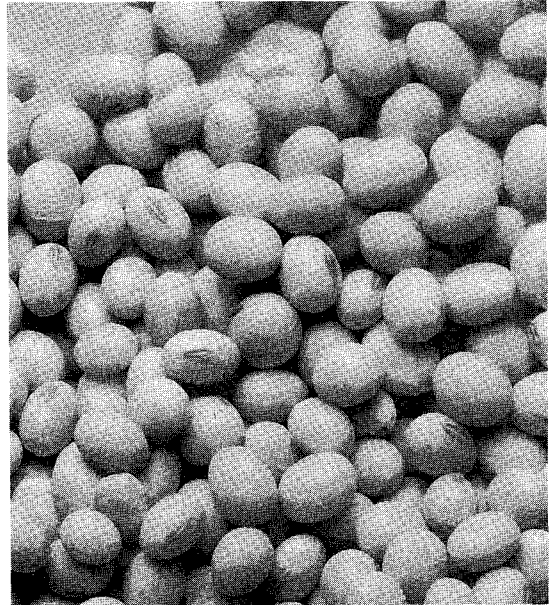
전문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고, 농업에는 애정을 가지고 실습장에 뛰어든 사람일 뿐이다.

본인의 본업에 따라, 우리의 농업정책을 판결을 하듯이 판단하라고 한다면, 「농민들은 한편으로 데모라도 하여서 정부로 하여금 시간을 벌 수 있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 농장을 개발하여 현지 생산·가공·수출을 하고, 식량개발의 일정부분(식량안보 부분 제외)을 해외농장에서 개발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필자는 그 작은 실천으로 연해주에 2,100만평 실험농장을 확보하고, 현재는 콩을 생산하고 있다. 현지에서 처분하고 금년농사를 확대준비하고, 현지가공, 동북지방 유통단지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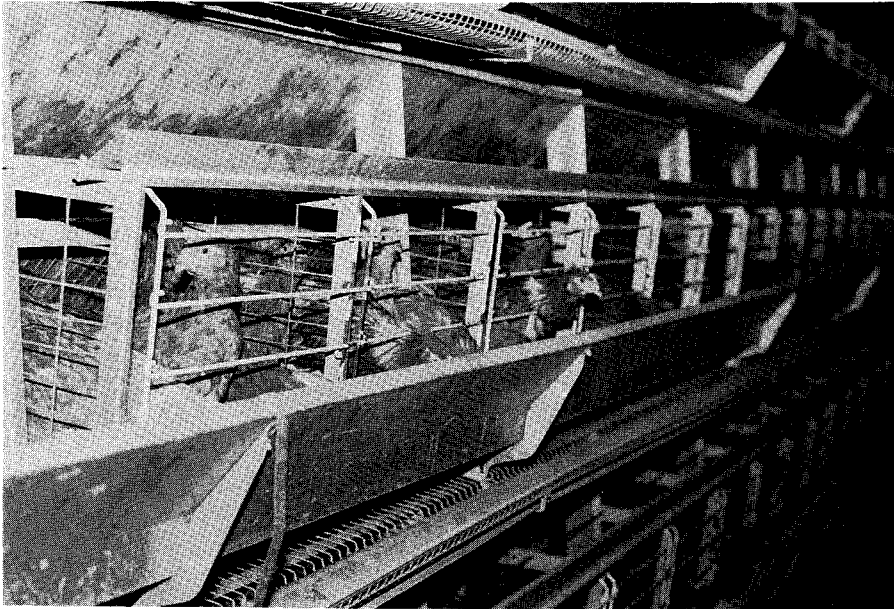
2. 북방농업의 현실과 투자 가능성

그 동안 북방농업으로 흑룡강성 농장개발은 기반사업투자에 과투자가 되어 성공하지 못하였고, 연해주(극동러시아 푸리모리스크주)의 경우는 수십억평 농장이 10ha씩 끊어서 경지정리와 관계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프라 형성을 위한 추가투자는 크지 않아도 되리라고 본다. 연해주 농업은 1991년 (재)국제농업개발원의 당시 이사장을 맡고 있던 본인이 그 당시 원장이던 이병화씨의 권유로 관심을 가졌었고, 그후 이병화 원장이 주축이 되어 한국의 농업관심인사를 소개하여 13개 정도의 회사 또는 단체가 연해주농업에 진출하였으나, 현지에 직접 나가지 않고 위탁영농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경우는 2000년 9월 푸리모리스크주



호롤군과 2,100만평 규모의 농지를 50년간 빌리는 계약을 하고, 2001년 그중 60만평에 콩과 메밀을 심었다. 3,000평에 미국돈 100불을 영농비로 지급하고, 가을에 영농비 만큼의 물량을 선지급 받고, 남은 생산품을 3:7로 분배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을 정하고, 위탁영농형태로 시작하였다. 농사결과 원금은 보전받고 약 30%의 이익을 본 것으로 되었지만, 관리비, 출장비 등을 감안하면 남은 것이 없었다. 대단위 농사를 하고, 우리 농민들이 짓는 농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원양수산물의 경우와 같은 무관세 혜택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농민단체가 전략을 세워서 공략을 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화훼, 특산 등 특수농업의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들은 닭과 돼지고기를 소고기보다 더 많이 먹고 있고, 값도 좋은 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소비시장이 두껍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조사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



를 발족하고 그 책임을 맡고 있다.

우리의 대응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국을 전혀 무시하거나 자국 이익만이 최우선이 되어서는 성공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대국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우리의 희망의 일부를 심어나가는

한 차원에서 보면 중국농업에 진출하는 것도 이제 실천단계가 되었다고 본다.

3. 동북아개발위원회

우리나라는 세계속에서도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한과 4강의 상관관계속에서 생존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본인은 극동러시아(연해주)에서 식량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에너지 기타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중국의 WTO 전략」과 「중국국가 863 과학선진화 전략」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해주(극동러시아)에서는 우리의 농업전진기지를 확보할 수 있고, 중국에서는 값싼 원료생산과 그 가공산업과 유통분야에 참여하여 우리 농업에 대한 충격완충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인은 본인의 뜻에 공감하는 전직 고위관직출신의 분들, 그리고 농업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동북아개발위원회

수박에 없다고 본다. 농업도 전문화된 기술과 외교적 전략과 통상정책전술을 합쳐서 세계시장속에 진출하여 대응한다면 그 활로가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다.

국제농업개발원은 (주)한려개발을 설립하여 연해주 농업을 개발하고, (주)KODI COMMUNICATIONS을 설립하여 중국에 IT 관련 합자회사설립협약을 얼마전에 체결하였다. 동북아에서 「대한민국 제2진국」을 달성하는 희망의 날이 오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양계**

사랑하고 존중하는 농민(양계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은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법률적 도움은 농변(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모임 TEL:3487-0114, FAX:(02)3487-2882)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니 농민(양계인)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